

2017
가을호 Vol.91

www.ksm.or.kr
www.facebook.com/ksmseoul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Special Theme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비전선포식 현장을 전하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나아갈 20년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정의롭고 건강한
한반도평화공동체



(04176)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나길 46(마포동) B1
Tel. 02-734-7070 | Fax. 02-734-8770 | ksmseoul@ksm.or.kr | www.ksm.or.kr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에서 특별협의지위 NGO자격을 부여받은 인도지원 NGO, 평화 NGO, 남북통합 NGO입니다





목차 Contents

- 03 **비전 전문** 우리민족 비전미션 전문
- 04 **권두언** 다시 평화를 생각하면서...
- 06 **화 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창립 21주년 기념식
- 08 **특 집** 우리민족 비전미션 '새로운 20년을 향하여' 선포문
- 11 **특별기고** 문재인 정부 시대의 남북관계 어디로 가고 있나?
- 14 **사업보고1** F4P 코치트레이닝
- 16 **사업보고2** 국제회의
- 18 **사업보고3** KYPI 4기
- 20 **사업보고4** BaB 캠페인 / 불고그라드
- 21 **사업보고5** 중국 조선족학교 교사 연수
- 22 **우리함께** 의형제
- 24 **사업일지** 한눈으로 보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25 **임원명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제16기 임원명단
- 26 **후원자 명단**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UN ECOSOC)의 특별협의지위 NGO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인도지원NGO로서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구현하고 민족화해와 한민족 공동체 형성에 기여합니다.

평화NGO로서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예방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남북통합NGO로서
한반도에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 그리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합니다.

발행인 명단, 윤여두, 이일영, 최완규 편집인 강영식 발행일 2017년 9월 주소 (04176)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나길 46(마포동) B1 전화 02)734-7070 팩스 02)734-8770 메일 ksmseoul@ksm.or.kr 홈페이지 www.ksm.or.kr 디자인 및 인쇄 마디커뮤니케이션(02-488-3002)

고문 김성훈, 박경조 상임공동대표 명단, 윤여두, 이일영, 최완규 공동대표 고경빈, 길정우, 김문찬, 김병준, 김영록, 김영수, 김철수, 김필건, 김현숙, 무원, 박남수, 박완수, 박준영, 손진우, 우희중, 원해영, 이수구, 이용선, 이재술, 전정희, 정의화, 천경배, 최호득, 추무진, 황인구 감사 김영환, 전성 사무총장 강영식 홍보편집위원장 김효정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비전

* 지난 6월 21일 창립 21주년 기념식에서 발표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새로운 비전과 미션입니다.

비전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정의롭고 건강한 한반도평화공동체

사명 우리는 서로돕기운동을 통해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정착을 위해 일한다.

핵심목표와 실천과제	
1. 핵심목표: 민족 공동 발전과 남북 간 격차해소를 위한 교류·협력의 확대	
실천과제 ①	농축산, 보건의료, 생태환경, 지식공유 분야 등에서 지속가능하며 상호이익이 되는 방식의 남북협력사업 선도
실천과제 ②	인도적 필요가 있는 지역과 대상에 대한 서로돕기운동의 확대
실천과제 ③	남북 교류 협력 및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평양사무소 설치와 관계망 구축
실천과제 ④	비전의 공유와 평화협력을 위한 재외동포 사회와의 관계 증진

2. 핵심목표: 한반도 갈등해결과 우리사회 평화문화 확산	
실천과제 ⑤	남북협력, 한반도 평화, 남북통합을 위한 정책연구와 제도개선
실천과제 ⑥	스포츠와 문화를 매개로 하는 참여적 방식의 평화교육 실행
실천과제 ⑦	평화로운 남북통합의 길을 열어가는 사회문화교류 추진

3. 핵심목표: 국내외 연대강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기반 조성	
실천과제 ⑧	시민참여와 소통의 확장을 통한 개방적인 조직 운영
실천과제 ⑨	안정적인 모금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전한 재정구조 실현
실천과제 ⑩	평화와 인도주의를 지향하는 국내 및 국제사회와의 네트워크 강화

다시, 평화를 생각하면서...

강영식 사무총장_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지난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5월의 푸르름 속에 있었던 새 정부의 출범이 악화되어온 남북관계에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역시 변화의 방향을 가늠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창립 일인 6월 21일, 창립 21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날 기념식은 지난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며 새로이 정립한 비전과 미션을 선포하는 자리를 겸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정의롭고 건강한 한반도 평화공동체”를 향한 새로운 20년의 첫 발걸음을 떼었고 새로운 길을 떠나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많은 분이 격려하고 응원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애초 뜻한 바대로라면, 이 자리에서 6월 10일로 예정되었던 우리 단체 대표단의 5년 만의 방북 결과를 보고하고 새로운 분위기에서 우리의 새로운 20년의 꿈을 함께 나누어야 했는데 예정되었던 대표단 방북과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사업은 기약 없이 연기되었고 오히려 오랫동안 중단된 민간교류와 대북지원 재개에 큰 기대를 하셨다가 실망하셨을 후원자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일 윤여두 상임공동대표의 인사말처럼 “누구 탓을 하지 않겠습니다. 당장의 일에 일희일비 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과 해외 동포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들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

가 시민의 힘으로 정의롭고 건강한 한반도 평화공동체를 만드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겁니다”라는 다짐을 다시금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매년 개최하는 ‘대북지원 국제회의’ 또한 올해로 9회를 맞이하였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를 주제로 지난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국제회의에는 첫 날 300여명의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경기도 등과 개최하는 국제회의의 목적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대북지원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더 나은 인도지원을 향한 논의이고 두 번째는 ‘대북지원 기관간의 협력과 조정, 네트워크 형성’이며 세 번째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의 움직임 확산’입니다. 최근 몇 년간 그리고 지금까지도 전반적인 대북지원이 위축되기는 했지만 이 회의는 꾸준히 진행되면서 대북지원 분야에 있어 국내외 지원기관, 후원 그룹,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유일한 회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5월 말, 창립 20여년의 기록을 담은 편지글을 드리면서 후원확대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4개월여 진행한 후원확대캠페인을 통해 당초 목표한 월 1천만원의 후원금 증액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150여 분이 참여해 주시면서 월 5백만원의 후원금 증액을 이루었

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후원확대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외에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몇 달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한민족 어린이지원을 위해 2011년부터 시작한 헌 교과서 수거활동을 통해 모금된 기금으로 16번째의 중국 조선족학교 네모상자 도서관을 9월 15일 준공하였으며 10월에는 17번째의 도서관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축구와 평화를 접목한 어린이평화축구 교실과 평화코치 트레이닝도 확고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이로 인한 한국정부와 국제사회의 더 강력해진 대북제재와 압박은 한반도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고,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뒤이은 최원규 상임공동대표의 특별 기고에 담겨있지만 당분간 한반도의 위기국면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위기 이후에 닥쳐올 반전

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지만 우리의 운명을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기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가야 하고 지금의 위기국면을 오히려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정의롭고 건강한 한반도 평화공동체”의 기회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희망은 언제나 절망의 끝자락에서 손을 내미는 법이라고 합니다.

2015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해 왔고, 앞으로도 하고자 하는 '대북(對北) 인도적/개발 지원'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평화와 지속가능한 개발의 관계를 설명하는 아래 문장을 다시금 되새겨 보면서 후원자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한가위 인사를 드립니다.

“평화가 없이는 지속가능한 개발도 있을 수 없으며 지속가능한 개발이 없으면 평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There can be no sustainable development without peace and no peace without sustainable development.)”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새로운 20년의
길을 나서다!**
-창립21주년 후원의밤-



인사말씀 윤여두 상임공동대표



새로운 20년의 길을 나서다
창립 21주년 후원의밤
2017년 6월 21일(수) 오후 6시 30분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비전 선포
우희동 공동대표, 장관영 간사



개막공연 소망재활원



축하공연 시노래꾼 허설



우리민족이 기억하는 사람 감사패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축사_천해성 통일부 차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새로운 20년의 길을 나서
창립 21주년 후원의밤
2017년 6월 21일(수) 오후 6시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
축사_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감사인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새로운 20년을 시작하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해 2016년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며 변화된 대내외 환경을 분석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활동 방향과 목표가 될 비전과 사명, 그리고 핵심목표를 도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1년여 간의 논의와 토론을 거쳐 지난 2017년 6월 21일 창립 21주년 기념식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비전>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비전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정의롭고 건강한 한반도평화공동체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꿈꾸는 한반도의 미래는 민주주의 발전과 정의실현, 인권신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한반도 평화공동체입니다. 한반도평화공동체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능동적 힘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지난 20년의 남북교류와 협력의 과정에서 체험하고 터득한 교훈입니다.

사명

우리는 서로돕기운동을 통해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정착을 위해 일한다.

- 한반도평화공동체는 지속적으로 서로돕기운동을 실천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 능동적으로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때 가능합니다.

핵심목표와 실천과제

1. 핵심목표: 민족 공동 발전과 남북 간 격차해소를 위한 교류·협력의 확대

실천과제 ①	농축산, 보건의료, 생태환경, 지식공유 분야 등에서 지속가능하며 상호이익이 되는 방식의 남북협력사업 선도
실천과제 ②	인도적 필요가 있는 지역과 대상에 대한 서로돕기운동의 확대
실천과제 ③	남북 교류 협력 및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평양사무소 설치와 관계망 구축
실천과제 ④	비전의 공유와 평화협력을 위한 재외동포 사회와의 관계 증진

- 우리는 접촉을 통한 변화를 믿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는 만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양적인 증가가 아니라 민족공동발전을 지향하고 상호격차를 줄여가는 교류·협력이 되어야 합니다.
- 그 방식은 일방에 의한 일방의 지원이 아니라 넘치는 것을 나누고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면서 차이를 줄이고 서로의 발전을 견인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민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민생협력이 되어야 합니다. 농축산, 보건의료, 생태환경, 지식공유 등 4가지 분야는 민간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민생협력 분야입니다.
- 그렇다고 해서 인도지원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겠습니다. 긴급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구호의 손길이 필요할 때는 조건없이 가장 먼저 달려갈 것입니다. 평양사무소 설치의 당장 쉽지 않겠지만 지속적인 민생협력의 발전과 확대를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 아울러 재외동포와도 지속적으로 서로돕기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외동포는 한반도의 분단과 갈등의 피해자이며 평화와 협력의 동반자입니다. 특히 한반도 주변 국가에 살고있는 동포들과 협력과 연대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재외동포는 한반도평화정착의 커다란 지지자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 핵심목표: 한반도 갈등해결과 우리사회 평화문화 확산

실천과제 ⑤	남북협력, 한반도 평화, 남북통합을 위한 정책연구와 제도개선
실천과제 ⑥	스포츠와 문화를 매개로 하는 참여적방식의 평화교육 실행
실천과제 ⑦	평화로운 남북통합의 길을 열어가는 사회문화교류 추진

- 한반도 갈등해결에서 민간의 역할이 넓어져야 합니다.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을 국가가 독점하는 상황에서 시민의 능동적인 힘을 모아내기 위해서는 민간의 독자적 활동공간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남북협력을 현장에서 실제로 실천해보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민간의 역량을 모아 제도를 개선하는 운동으로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 상대를 존중하며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평화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함께 차별없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스포츠와 예술 등을 활용한 평화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실험하고 있는 어린이 평화축구교실은 스포츠를 통한 평화교육의 개념을 확산시키며 평화교육의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 사회문화교류는 행사자체의 성사보다는 시민의 참여와 평화문화를 확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3. 핵심목표: 국내외 연대강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기반 조성

실천과제 ⑤	시민참여와 소통의 확장을 통한 개방적인 조직 운영
실천과제 ⑥	안정적인 모금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전한 재정구조 실현
실천과제 ⑦	평화와 인도주의를 지향하는 국내 및 국제사회와의 네트워크 강화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창립정신은 연대와 협력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은 여전히 우리 활동의 근간입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조직 운영을 통해 시민이 만들어 가는 남북 화해, 한반도 평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책무성 그리고 투명성을 바탕으로 후원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우리는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국내외 조직들과 적극적으로 협력·연대하고, 관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이들이 소통하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대의 남북관계, 어디로 가고 있나?

해법이 어려운 정치군사 문제보다는 경제와 문화를 주제로 정부보다는 민간 부문에서 북한과의 소통과 교류협력에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북한을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최완규 상임공동대표_신한대학교 석좌교수 / 탈분단경제문화연구원장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정제된 남북관계를 복원시키고 대화를 재개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는 자신의 구상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뜻은 문 대통령의 신 베를린 선언(5대 대북정책 방향과 4대 대북제안을 담은 한반도 평화구상)에서 좀 더 구체화되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7월 4일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틀 후인 7월 6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 구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북한 적십자회담과 군사회담도 공식 제안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매우 강했다. 그래서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시도해 왔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비롯한 대북지원 관련 단체들도 새 정부와 보조를 맞추었다. 발 빠르게 대북 접촉을 하

고 지원 사업 재개 준비에 나섰다. 북한당국도 민간단체들의 방북 요청을 수용했다. 새 정부도 전임 정부가 불허해 왔던 관련 단체들의 방북을 조건 없이 승인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표단은 4박 5일 일정으로 6월 10일 평양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는 6월 5일 한미합동 군사훈련과 미국의 대북제재에 남한이 적극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비난하며, 방북도 분위기가 좋아질 때까지 연기하겠다는 연락을 해 왔다. 이후 북한은 모든 민간단체의 방북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문재인 정부의 계속된 대화제외와 한반도 평화구상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가? 사실 문재인 정부는 태생적으로 6.15와 10.4 선언의 정신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정부이다. 북한은 지난 10년 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게 줄기차게 두 선언을 이행할 것을 요구해 왔었다. 문 대통령도 신 베를린 선언에서 공식적으로 6.15와 10.4 선언으로의 복귀를 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기대와 달리 북한이 대화나 교류



협력의 장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북한은 베를린선언이 나온 지 11일 만에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서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그들은 베를린 평화 구상에서 문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들과 달리 6.15와 10.4 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는 언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외세의존과 동족 대결적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우선 논평자는 문 대통령이 민족의 문제를 “남의 나라 땅 다른 나라 사람들 앞에서” 발표한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독일의 통일 경험이 한반도 통일의 표본(원문은 “독일통일의 경험은 지구상 마지막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우리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과 함께 우리가 나갈 방향을 말해 주고 있다.”)이라고 강조한 것은 전형적인 흡수통일론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북한이 베를린 구상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결정적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베를린 선언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절대적 조건”임을 강조했다. 나아가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조선반도 평화 파괴 책임을 모면하고 외세를 부추겨 우리를 무장 해제시켜 보겠다는 흉심을 드러낸 가소로운 망발”이라고 일축해 버렸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미국의 대북한 적대시 정책과 핵 전쟁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베를린 선언의 내용으로만 보면 문재인 정부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다루어 왔던 기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임 두 정부 모두 북한의 선 비핵

화에 골몰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남북관계의 파탄과 북한 핵의 고도화였다. 물론 북한 핵문제는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사안의 본질적 성격상 남북한 보다는 북한과 미국이 일차적 당사자일 수밖에 없다. 나아가 핵 문제 당사자의 한 축인 북한은 비핵화는 고사하고 그들이 설정한 핵무기와 운반수단의 고도화를 달성하기 전에는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이와 같은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전임 두 정부는 비현실적인 북한의 비핵화 함정에 빠져 북한 핵의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 그 여파로 남북관계마저도 얼어붙었다. 문재인 정부는 왜 실패한 전임 정부의 전철을 답습하려고 하는가? 이제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 북한 비핵화 정책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지난 30여년의 북한 핵 개발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딛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왔는지 알 수 있다. 북한의 시각으로 보면 핵과 미사일이야말로 정권과 체제생존의 최후 보루이다. 북한은 그들이 경험적으로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정권 유지와 체제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대체재가 아닌 한, 그 어떤 조건을 제시해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입장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듯 9월 3일 예상보다도 빨리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에 의하면 이번 핵실험은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이 가능한 수소탄 실험이었다.

솔직하게 말해서 북한은 명실상부한 핵보유 국가가 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 왔다. 즉 핵 보유국가가 되는 것은 북한이 최고로 선호하는 국가목표인 셈이다. 그에 반해서 한국과 미국 등 관련 국가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긴 하지만 선호(preference) 내지 절실함의 강도가 북한에 비해 약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 역시 다른 모든 가치를 희생하면서까지 북한의 비핵화에 매달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당장 핵무기를 대신해서 북한 스스로 완전하게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체제와 정권을 유지시킬 수 있는 평화체



제 또한 구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동결 내지 더 이상의 실험을 유예하는 타협책을 조심스럽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비핵화 문제는 동결 이후에 추구해야 할 과제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북한과의 직접 대화보다는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관련 당사국들과 협력하에 강력한 제재 망을 구축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를 고집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 도발에 대비해서 미국의 전략자산 상시 배치와 전술핵 재배치까지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 대 강의 전통적 절대안보 개념만으로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만들어 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지난 30여 년 동안의 남북간 갈등과 대립의 역사가 극명하게 말해 주고 있다. 오히려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켜 왔을 뿐이다. 이제부터는 화해의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안보개념을 정립하고 남북한의 교류 협력을

본격화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운전석에 앉을 수 있는 길이고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면서 평화로 가는 길이다.

그 시작은 당장 타협이 어려운 정치 군사적 의제보다는 경제·문화 분야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추진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시민사회가 되어야 한다. 정부가 비정치군사 분야의 교류와 협력에 대해서만은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적어도 경제와 문화 분야는 정부보다 민간부문이 더 원활하게 북한과의 소통과 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대외적 압력으로부터도 정부보다는 자유스럽다. 이러한 길이 평화를 지키면서 북한이 스스로 변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며, 북한을 국제사회에 정상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렇게 되면 남북관계 정상화의 아킬레스건인 북한 핵문제의 현실적 해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를 통한 평화교육을 통해 평화교육의 지평을 넓혀갑니다

- 8월 4~7일까지 <2017 스포츠를 통한 평화교육 코치트레이닝> 개최

지난 8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2017 스포츠를 통한 평화교육 코치트레이닝이 개최됐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4일간 진행된 이번 코치트레이닝은 3일 간의 교육 후 마지막 날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실습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양두리 간사_정책팀

“평화의 기운, 뜨거운 여름을 삼키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2017 스포츠를 통한 평화교육 코치 트레이닝>은 올 해도 어김없이 가장 무더운 시기에 개최됐습니다. 영국 코치진들의 방문 가능 일정과 시설을 지원해 주시는 서울대학교의 일정, 그리고 참가자들의 휴가 기간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5도를 웃도는 무더위에도 40여 명의 참가자들과 10여명의 코치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트레이닝에 매진했습니다.

올 해 트레이닝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론수업과 체육 실기수업, 그리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



는 코칭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특히, 올 해 이론 수업에서는 김정수 여성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이 땅에 왜 평화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외국의 사례를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 맥락에서 평화축구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김정수 원장은 한반도의 분단 현실에서 지금까지 실시된 통일교육의 변천을 돌아보면서 그 과정이 얼마나 일방적이었는지, 게다가 때로는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평화교육은 통일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통일교육은 반드시 평화교육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평화교육

<평화교육 코치 트레이닝>은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물론, 트레이닝 전체를 이수한 참가자들에게는 1·2급 자격증이 주어지지만 이 자격증으로 돈을 벌 수 있거나 갑자기 전문성을 인정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다양한 현장에서 아동들을 만나는 이들이 체육과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통해 평화가치를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툴을 활용하고 적용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영국코치진들이 선택한 방식은 이미 <스포츠를 통한 평화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이들로 하여금 ‘후배’

참가자들을 직접 가르쳐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작년에 참가한 2급 코치들은 올 해 처음으로 트레이닝에 참가한 1급 코치들을 지도하고, 3년차 코치들은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2급 코치들의 역할을 배분합니다. 모두 처음 해보는 역할인 만큼 중간중간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코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서로에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우리 사회 평화교육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는 다양한 평화교육의 주체들이 다양한 시각과 방식을 가지고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 ‘평화교육’을 접목한 역사교육, 수학교육, 국어교육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평화교육의 방식이 고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축구를 통해 평화가치를 배울 수 있는 평화축구 프로그램이 국내에 보다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국제평화축구(F4P International)과 연대하여 F4P Korea를 설립, 활동 중입니다. 9년의 평화축구교실과 3년의 코치트레이닝 경험을 토대로 내년에는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더 많은 코치들을 양성하고, 또 초등학교 등 공교육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한편, 국내외의 평화축구 코치들과의 교류와 연대, 협력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발전과 평화의 길을 모색하다

- 8월 29일, 30일 양일간 <2017 대북지원 국제회의> 열려

지난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2017 대북지원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프레스센터에서 공개회의로 진행된 29일 회의에는 300여명, 대북지원 단체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된 30일 회의에는 80여명이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발전과 평화'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이예정 부장 _ 정책팀/평화나눔센터



“나눔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 온 것이 대북지원의 역사”

대북지원 국제회의는 지난 2009년부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경기도,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는 회의입니다. 올해에는 기존 3개 기관에 더해 제주도가 공동주최 기관으로, 통일부가 후원 기관으로 참여했습니다.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발전과 평화’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대북지원이 북한의 인도적 문제 해결은 물론 향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디딤돌이 돼야 한다는 바람이 그 어느때보다 높았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조명균 통일부장관의 연설에서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나눔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 온 것이 대북지원의 역사입니다.....(중략).....대북지원은 남북의 공존과 평화, 포괄 안보와 한반도의 미래에 기여하는 남북한이 ‘서로 돕는’ 협력입니다. 정부는 이 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의 폭넓은 공감과 합의에 바탕을 둘 때 대북정책도, 인도적 지원도 지속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대북지원 주체들의 역할 확대 및 본격적인 북한 개발협력 모색

올 해 회의에서는 한국 정부, NGO, UN기구, 한국 지자체 등 다양한 대북지원 주체들의 과거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향후 이들의 역할 확대, 그리고 다양한 기관들 간의 연대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30일에는 통일부와 외국 초청 인사들과의 비공개 간담회, 31일에는 지자체 인사들과 외국 초청인사들 간의 비공개 간담회를 각각 개최하여 서로의 활동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향후 활동에 대해 서로 조언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올 해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북한 개발협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갔

습니다. 비록 본격적인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조건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존재하지만 북한 개발협력이 단순히 북한 주민들의 역량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한반도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데 참석자 다수가 공감했습니다.

내년 열 번째 대북지원 국제회의를 준비하며

2018년, 대북지원 국제회의가 10회째를 맞습니다. 본 회의가 진행됐던 지난 9년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한의 대북 지원은 거의 중단되었고, 국제사회의 지원활동도 대북경제 제재로 인해 가파른 내리막을 걸어온 시기와 일치합니다.

남북 간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핵문제도 쉽게 풀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큰 이슈에 가려 보이지 않는 북한의 인도적 필요에 대해,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대북지원과 교류협력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나눔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 온 것이 대북지원의 역사이며, 이것이 여전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2017 대북지원 국제회의 -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	
8월 29일: 공개회의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 회 식: 기초연설(조명균 통일부장관) • 전체회의 1: 향후 한국의 대북지원 발전 방안 모색 • 전체회의 2: 지속가능한 북한 개발협력의 모색
8월 30일: 비공개회의 (여의도 글래드호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회의 3: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향후 대북지원 방향 모색 • 전체회의 4: 지식공유사업의 경험과 향후 발전 방안 • 전체회의 5: 종합 토론
* 8월 31일: 지자체 특별세션 (여의도 글래드호텔)	



시야, 관심, 그리고 이해

한중 청소년 평화 이니셔티브가 2017년 7월 22일~8월 12일 서울과 중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들이 중국 동북3성 일대를 돌아보며 평화에 대해 알아보고, 접경지역 및 유적지 등을 탐방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역사를 좋아하고 강연 들으러 다니기가 취미인 한 참가자의 소감을 전해드립니다.

장서영_ 강화여자고등학교 2학년



가장 인상적인 그곳, 천지

중국에서 돌아온 지 꽤 지났지만 캠프 동안의 모든 일정, 장소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많은 친구들과처럼 저 역시 사진으로만 봤던 백두산이었습니다. 천지로 가는 길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되어 버스로 왕복 10시간의 여정, 1,440개가 넘는 계단을 오르는 등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가는 도중 지치기도 했지만, 천지는

무척 맑고 웅장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해주었습니다. 기대했던 운동주 생각도, 항상 궁금했던 두만강도 다 좋았지만, 조금 더 인상적인 장소를 꼽자면 단연코 백두산입니다.

평화강의를 들으며 깨달은 사실

역사학자를 꿈꾸는 저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아가고 싶은 캠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참가지원

서에 쓴 바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이나 관점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강연 중 1910년, 그리고 1945년에도 지금의 북한이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일본과 열강의 같은 피해자였다는 ‘당연한’ 사실을 들었을 때 새삼 놀랐습니다. 그만큼 저는 남과 북은 오래전부터 나뉘어져 있었다고 세월호를 예로 들면서 요즘 사회에서 적용되고 있는 정의라는 개념을 다시 짚어주시는 것 또한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가해자는 그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라고만 여겼고 그게 피해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듣고 보니 아니라는 판단과 함께, ‘나도 그저 관심을 부추기는 언론에 동요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갈 길이 멀고, 그 사이에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던 강의였습니다.

역사 속 장소, 배움의 현장에 직접 서다.

기억에 정말 남는 인물 한 분이 계신데, 둘째 날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던 안금송 선생님입니다. 우리는 운동주 생각에 온 것이 아니라 ‘용정’에 왔다는 점을 강조하시며 김약연이란 인물을 처음 소개해주셨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지만 그의 행적을 보니 모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김약연이 세웠다는 명동학교 안에서 직접 그 얘기를 들으니 더 실감나게 느껴지고 집중되었습니다. 왜 조선인들이 중국으로 넘어 왔는지, 일제 강점기 시기에 왜 교육이 필요했는지와 같은 내용은 예전부터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만, 실제 이야기 장소의 중심에 서서 듣는 설명은 칠판 앞에서 들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생생했습니다.

‘시야’, ‘관심’ 그리고 ‘이해’

캠프 마지막 날 이번 캠프를 정리하며 기억나는 단어 세 가지를 꼽아보는 시간에 제가 고심 끝에 선택한 단어는 “시야”, “관심” 그리고 “이해”였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곳, 사람들과 만나고, 장소를 방문하면서 또 한 번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질 수 있었습니다. 먼발치에서 북한 땅을 조망하며, 마음으로는 멀지만 물리적으로는 가까운 저 땅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캠프 전까지는 잘못된



방향으로 향했던 관심을 평화 강의를 통해 고민해보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재중동포 친구들과 지내면서 지금까지의 오해, 선입견을 깨고 이해하는 기회 역시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새로움으로 가득했던 4박5일간의 시간은 제게 탈출구 같았습니다. 시험의 문제를 풀기 위한 고민이 아닌 실제로 제가 보고, 듣고, 느끼는 생각을 자유롭게 한 것이 아주 오랜 만이었습니다. 모든 일과가 재미있고,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흥미로웠습니다. 옆에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였기에 기쁨 또한 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싫을 만큼 행복했고 스스로도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캠프로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미리내, 제1회 국제사물놀이포럼 개최

이영재 부장_지원사업팀

시아 불고그라드에 고려인 청년단체 '미리내'에서는 올해도 한글학교와 전통문화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처음으로 '미리내'가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려인 청년들을 불고그라드로 초대해 국제 사물놀이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7월 20일부터 23일 총 4일간 열린 이번 포럼에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실력 있는 사물놀이 연주자인 알렉산더 박과 마리나의 지도를 받아서 진행되었습니다. 평소 사물놀이를 배우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던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려인들이 이번 기회로 참여하여 서로의 실력을 겨루고,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크 등 총 8개의 나라와 도시의 고려인 총 32명이 참여하여 청년들 간의 지역 연대와 우정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어 10월 14일에는 고려인문화축제가 열립니다. 해마다 개최하는 이번 축제에는 한국의 문화유적과 다채로운 음식들을 알리고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러시아 고려인들] 신문에 실린 사물놀이포럼 기사

북한 어린이들을 향한 지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남북관계의 엄중함 속에서도 북한 접경지역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한끼 급식을 지원하는 끈은 끝까지 놓지 않고자 합니다. 2017년 7월 미국 달라스 본부를 통해 강원도 원산에 콩을, 해외동포 단체를 통해 평안도 등의 유치원, 탁아소에 급식물자로 전달하였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을 향한 지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같은 한반도에 살고 있지만, 누구는 남쪽, 누구는 북쪽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북한의 아이들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같이 키워낼 것입니다.



해외동포를 통해 강원도 원산에 지원한 콩



도서관을 학생들의 보금자리로 만들어갑니다.

이영재 부장_지원사업팀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한 도서관 운영연수를 지난 4월 23일부터 28일까지 서울~경기 일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연변화동정보교류회사가 주최하고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가 주관하였으며 중국 동북3성과 내몽고에서 도서관 담당교사, 부교장(교감) 등 총 1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6박7일 동안 진행된 이번 연수는 학교도서관의 역할은 무엇이며, 학교도서관 안에서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도서관과 도서관 담당교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지난 연수와 비슷하게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참관을 하고, 실제 학교에서 학생들과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교사들의 사례를 듣고 실습해보는 시간을 다양하게 가졌습니다. 자기만의 그림책 만들기, 그림책의 내용으로 연극놀이하기 등 책과 놀이를 접목시킨 활동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중국 조선족학교 학생 부모들이 한국으로 또는 도시로 흩어져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결손가정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듬을 수 있는 독서치유 활동도 시범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참가한 10명의 교사들은 기존의 학교도서관, 즉 책과 책상만 덩그러니 있는 삭막한 도서관에 어떻게 아이들이 즐겁게 찾아오게끔 할 수 있을지 막막해 했습니다. 그



러나 점차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해보고 실습을 통해 직접 실행해보면서 서서히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중국 조선족학교로 돌아가서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초청연수는 2014년부터 시작하여 4년째를 맞았습니다. 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은 학교로 돌아가 많은 것을 시도해보지만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한 차례의 연수로 모든 것을 바꿔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한국 도서관 전문가와 조선족학교 교사들을 이어주고, 동시에 조선족학교 교사들을 연결해 서로의 생각과 방식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고민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한국의 도서관 전문가들이 중국을 방문하여 동북3성 조선족학교 교사들을 모아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11월로 일정을 잡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형제

질문 드리며 시작합니다. 남북은 다시 형제의 우애를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함께 다섯 번째 콘텐츠는 영화 <의형제>입니다. 분단 체제 속, '함께' 살아가는 두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강지현 간사_기획홍보팀



대립하는 전직 국장원 요원 이한규(송강호 분)와 남파공작원 송지원(강동원 분)

“저는 누구도 배신하지 않았습니.”

극중 남파공작원 송지원의 대사입니다.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남북민 모두 형제이고 한민족입니다. 하지만 70년이 넘도록 서로다른 체제에서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가치관이 맞든 틀리든 간에 쉽게 버릴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통일을 말하며, 상대방의 다름을 무시하고 오직 하나의 모습만 상상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살아온 삶을 깡그리 무시하고 다른 방식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나, 반감만 불러옵니다. 자신은 누구도 배신하지 않았다는 송지원의 고백은 남북민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 어떤 체제의 우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자식과 삶이 있는 고향을 쉽게 등질 수 없는 상황 그 자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통일을 열어가야 할까요? 분단된 체제 속, 유학 간 딸을 그리워 하는 이한규와 북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는 송 지원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게 어떨까요?

“의리와 의심 사이 이놈을 믿어도 될까?”

영화 '의형제'는 신뢰 형성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뢰는 조건이 아니라 만남의 결과라는 사실 말입니다. 국정원 요원이었던 이한규는 남파공작원 송지원에 대한 간첩 보상을 노리고, 동업을 제안합니다. 송지원도 이한규의 정체를 알지만 남파공작원으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동의하지요, 서로 불신하지만 적대감을 감추고, 만남은 시작됩니다.

함께하는 과정이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서로 의심하고 주먹다짐을하며 다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다음 장면은 영화 '의형제'에서 뿌리깊은 불신과 갈등 해소가 이뤄지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송지원 앞에 작은 칼이 떨어져 있습니다.



함께 차레 지내는 한규와 지원

의심과 반목을 반복하던 이한규와 송 지원은 민족의 명절 추석에 서로의 정체를 알게됩니다. 정체가 드러나 칼을 꺼내며 대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떨어져 살아가는 서로의 처연한 상황에 인간적인 공감을 이뤄내게 됩니다. 결국, 대립의 상징이었던 칼을 떨어뜨리고, 함께 차레를 지냅니다.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에서, 철저히 서로를 부정하며 7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시간의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상황을 먼저 공감하고 이해한다면, 위협과 대립의 무기를 내려놓고 다시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형제의 우애를 나누는 지원과 한규



'의형제'는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개봉한 영화입니다. 극의 전체적인 맥락을 꿰는 위기는 북핵실험과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와 관련 깊습니다. 남파간첩으로 남한에 왔으나 고향인 북한으로 가지 못해 동떨어져 있는 송 지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가는 말폭탄과 전쟁의 위협. 그 거대한 적대와 공포의 흐름에 저항하는 평화의 움직임이 얼마나 효과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북한 정권의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전쟁'의 결과는 종국적인 '파멸'로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체제의 하나 된 보다 남북민의 공존을 먼저 고민할 때, 평화가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새로운 비전은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정의롭고 건강한 한반도 평화공동체'입니다. 불안과 적대의식은 상충합니다. 담대하게 불안을 넘어서고, 긴 호흡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전망해야 합니다.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평화를 열망하는 시민의 힘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처음 질문을 되문습니다. 남북은 다시 형제의 우애를 나눌 수 있을까요? 영화 '의형제'의 한규와 지원처럼 다가오는 민족의 명절 추석에는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남북이 형제가 될 수 없다면, 친구라도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북에 있는 동포들에게 손길을 내밀어야만 합니다.

한눈으로 보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1월

- 2일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과 경제 전망' 토론회
- 2일~5일 1월 학교교과서 수거활동
- 5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하례회 (서울시청)
- 12일 비전위원회 사무처 워크숍 (회의실)
- 18일 경기도 안산 성포동성당 한글도서 1,300여권 기증
- 19일 경기도 성남동성당 한글도서 3,500여권 기증
- 23일 <북민협> 정기총회 (서울시민청 대평홀)
- 25일~28일 美 달라스본부 대표단 방북

2월

- 1일~20일 2월 학교교과서 수거활동
- 10일 사무처 내부 정책간담회 (회의실)
- 13일 대북 농업물자 지원
- 17일 부산본부 정기총회 (부산 사무실)
- 20일 12차 함경북도 수해 지원 (남평→무산)
- 22일 제81차 공동대표회의
- 24일 광주전남본부 정기총회 (다향)
- 26일~3월 1일 사무처 워크숍
- 28일 함경북도 수해 최종 지원(13차) (단동→신의주)

3월

- 8일 지자체 남북말라리아 방역사업 협의모임 (경기북부청)
- 14일 사무처 전략워크숍
- 16일 사무처 내부 정책간담회 (대회의실)
- 17일 UN 북한 전략계획 (UN Strategic Framework 2017-2021) 한글번역본 발간
- 23일 '2016년 사업보고서' (Annual Report) 발간

4월

- 1일~15일 경기도 어린이평화축구교실 (수원 농진청)
- 5일 사무처 내부 정책간담회 (대회의실)
중국 네모상자 도서관 지원사업 평가회의
- 12일 정책연구위원단 회의 및 제1차 내부 전략세미나 (대회의실)
<북민협>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정책건의서' 전달
- 15일 네모상자 동아리 발대식 (수원)
- 22일 중국 도문시 조선족소학교 도서관 지원협약식
- 24일~28일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 담당교사 국내 초청연수
- 25일 주요 정당 통일·대북정책 책임자 초청토론회
(북민협·민화협 주최 / 프레스센터)
- 28일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 동력구 조선족소학교 도서관 지원협약식

5월

- 6일 1차 DMZ 평화투어 (경기도 파주 일대)
- 12일 제82차 공동대표회의
- 24일 온라인 후원 캠페인 시작
- 27일 2017 여성평화환경기대회 공동주최 (임진각 일대)

6월

- 13일~17일 부산본부, 사할린 징용 동포 4세 청소년 초청 역사문화기행 (부산)
- 15일 6·15공동선언 17주년 기념행사 (프레스센터)
- 21일 창립 21주년 후원회 밤 (백범기념관)

7월

- 13일 BaB 캠페인 물자 지원
- 17일~28일 7월 학교교과서 수거활동
- 22일~8월 12일 한중 청소년 평화이니셔티브 4기
- 27일 광주전남본부 정책포럼

8월

- 4일~7일 제3회 평화교육 F4P 코치트레이닝 (서울대)
- 6일 부산본부, 제4회 일제강점기 사할린 징용 희생자 추념식 개최 (사할린)
- 10일 BaB 캠페인 물자 지원
- 11일 일본 10개 조선학교 지원용 한글도서 10,151권 지원
- 21일 시민사회단체 평화플래시몹 (시청광장)
- 29일~30일 '2017년 대북지원 국제회의'
 - ▶ 첫째날 (8/29) 개회식 및 공개회의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 둘째날 (8/30) 비공개회의
 - 여의도 글래드호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제16기 임원명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2월 22일 열린 제81차 공동대표회의에서 제16기 임원진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새롭게 선임된 공동대표를 포함한 제16기 임원 명단을 아래에 알려드립니다.

(2017년 9월 현재)

임원	성명	직위
고문	김성훈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박경조	前대한성공회대주교
상임공동대표	영 담	부천 석왕사 주지
	윤여두	(주)GMT 회장
	이일영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회장
	최완규	신한대학교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장
공동대표	고경빈	평화재단이사
	길정우	이투데이 총괄대표
	김문찬	국제교육문화재단 특별고문
	김병준	양천사회복지법인 대표
	김영록	광주전남본부상임대표/광주지방세무사회장
	김영수	서강대학교 정의과 교수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현숙	신한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무 원	부산본부 상임대표 / 광수사 주지
	박남수	前 천도교 교령 / 3.1운동 100주년기념사업회 상임대표
	박완수	가천대학교 한의대학 교수
	박준영	을지재단 회장
	손진우	삼용화성 회장
	우희중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장
	원혜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구	건강사회운동본부 이사장
	이용선	양천 나눔과동행 대표
	이재술	前 딜로이트 코리아 회장
	전정희	농수축산신문사 대표
정의화	前 국회의장	
천정배	국회의원(국민의당)	
최호득	갈릴리교회담임목사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	
황언구	이토마토 부회장	
감사	김영환	공인회계사
	전 성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신 대표

